

Ⅱ.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

1.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

- 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연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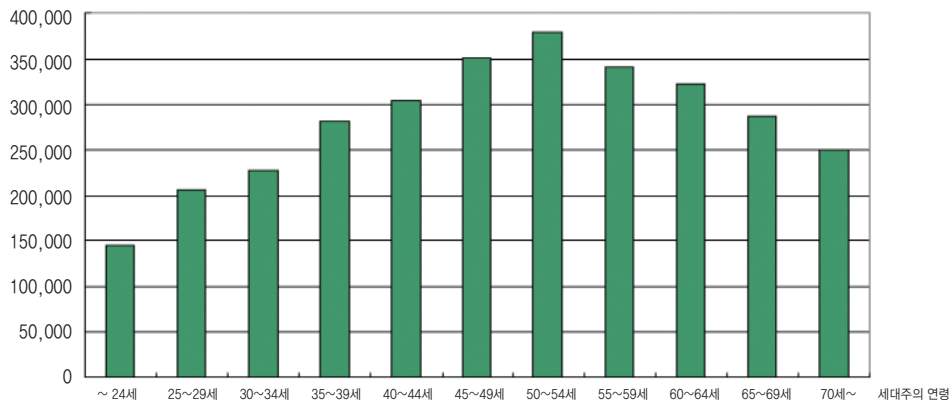
- 출생인구가 감소하고 단카이 세대가 65세를 넘어섬에 따라 생산연령 인구(15~64세)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8,000만명, 2035년에는 6,343만명, 2060년에는 4,418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.
- 2010년의 생산연령 인구(8,173만 명)와 비교했을 때 향후 50년 간 약 45%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

* 또한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은 1992년에 최고치인 69.8%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12년에는 62.9%로 나타남.²⁾

- 세대별 지출액은 세대주의 연령이 50대 전반까지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는 세대주의 연령 상승과 더불어 감소하는 경향(<그림 5> 참조)

〈그림 5〉 세대주 연령 구간별 1세대 1개월 지출(총 세대)

(단위 : 지출액, 엔)



자료 : 總務省, '家計消費状況調査年報 2010年'

2) 總務省, '人口推計'(2012.10.01.) p.5